

# 딱지본 대중소설, 혼란과 판타지

김청강\*

1. 딱지본 대중소설 연구의 의미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 혼란의 시대 - 개화세상
4. 그들의 환상 - 소원성취의 서사
5. 맺음말

## 국문요약

이 글은 그동안 학계의 연구에서 '저급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평론의 지평에서 도외시 되어왔던 딱지본 대중소설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을 규명하고자, 1910년에 발행된 『절쳐봉생』과 1930년대에 발행된 『북간도의 누』 그리고 『황금의 몽』을 '혼란'과 '판타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각각의 시기적, 정치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 세 작품은 근대라는 시간을 겪으며 대중들이 느꼈던 가치관의 혼란과 생활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근대의 주체로서 합류하지 못한 그러나 근대적 욕망은 지니고 있었던 남성들 - 아버지, 구세대, 몰락한 양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들 남성군은 근대에 부적응하는 인물들이며, 때문에 근대라는 시공간에서 현실적으로 무능력한 남성상을 대표한다. 위 세 소설은 이들이 겪는 경제적, 신분적, 윤리적 위기의 순간을 포착하여 그들의 슬픔과 상실감을 여성의 눈물과는 구별되는 '남성적 눈물'로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사회 변화를 여러

---

\*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Urbana-Champaign) 동양문화학과 박사수료

가지 과편화된 형식으로 취사선택하여, 그들의 손실된 사회적, 문화적 위치를 안정화시킨다. 이들 소설은 특히, 판타지라는 장치를 통하여 이들의 '구세대 남성 수난'의 서사를 극복하고, 근대에서 성공하는 몽상적 가부장의 모습을 그림으로서 불가능의 현실을 전복한다.

딱지본 대중소설의 이러한 서사 구조는 어떠한 역사 자료로도 찾아보기 힘든, 대중들의 생활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비록 딱지본 소설이 문체의 구사나 주제 구현에 있어서 본격적인 근대 소설에 비해 평가를 받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딱지본 대중소설은 그 나름대로의 현실성과 함께 대중들이 선호할 만한 요소가 풍부했던 의미 있는 문화 생산물이라는 평가 받아야 한다.

---

## 주제어

딱지본 대중소설, 남성 수난, 혼란, 남성 판타지, 가부장, 전복, 『절처봉생』, 『황금의 몽』, 『북간도의 누』

## 1. 딱지본 대중소설 연구의 의미

이 글은 1912년 보급서관(普及書館)이 펴낸 <옥중화>가 그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근대 초기에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읽혔던 소위 딱지본 대중소설의 한 성격에 관한 연구이다. '딱지본'이라는 통칭은 '활자본', '고활자본', '구활자본', '이야기 책', '구활자본 고소설', '구활자본 대중소설' 등의 방각본을 대체한 새로운 활자본으로 찍힌 소설 가운데,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싼 가격에 주로 장터에서 팔린, 대부분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소설<sup>1)</sup>들을 아우르는 말이다. 이 중 필자가 연구하고자

---

1) 필자가 읽은 딱지본 소설은 대부분이 작가가 없는 것이 많았으며, 그 중 소수작이 박누월, 박철훈, 월파라는 작가에 의해서 쓰였다.

하는 '딱지본 대중소설'은 딱지본 소설 중에서 고소설류와 신작 구소설<sup>2)</sup>을 제외한, 근대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설이다. 딱지본 대중소설에 관한 선두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다만, 딱지본 소설 중에서 구소설에 해당하는 것은 고소설의 연구 선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작 구소설에 해당될 만한 소설 작품이 '고소설'로 분류되어 연구 되는가<sup>3)</sup> 하면 신작 구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이 신소설 전집에 포함<sup>4)</sup>되어 있는 등 고소설과 신소설의 구분조차 모호한 형편이다.

이러한 분류에 있어서의 혼돈은, 실제로 딱지본 소설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시기 딱지본 대중소설의 특성 자체가 '혼돈'을 가져올만한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록 딱지본 대중소설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조동일은 신소설과 고소설의 유기적인 관계를 연구한 바가 있다. 그는 고소설과 비교하여 신소설의 가장 큰 특징을 표면적 주제 (계몽성)와 이면적 주제 (전래적 가치관)의 상이성을 들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하였다.<sup>5)</sup> 그의 연구는 임화<sup>6)</sup> 이래로 신소설을 '과도기적 문학'으로 규정하는 틀을 벗어나, 근대를 전통시대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한 연구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후에 그는 신소설의 이러한 측면이 근대 소설로서는 결핍

- 
- 2) 이은숙은 특히 신작 고소설을 '구소설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신문학적 요소를 가미한 소설로 정의하며, 그 시대배경과 문체, 주제에 따라서 신소설과 신작 고소설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은숙, 「활자본 신작구소설에서의 애정소설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3) 임성진, 「구활자본 애정소설연구: 추풍감별곡, 부용의 상사곡, 청년회심곡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 4) 1977년에 계명출판사에서 출간된 '신소설 전집'에는 작가가 있는 신소설과 신작 고소설 그리고 딱지본 대중소설이 이 모두 '신소설'로 분류되어 출판되었다. 『신소설 전집: 개화기 문학』, 계명출판사, 1977.
  - 5) 조동일, 『新小説의 文學史的 性格』, 한국 문화 연구소, 1973.
  - 6) 임화, 『개설 신문학사』, 한길사, 1993.

의 상태이고 따라서 주제의식을 표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논조를 바꾼다.7) 결국 조동일은 본격 근대 소설이라 일컬어지는 이광수의 『무정』 이전의 대중소설의 한 계열인 신소설이, 이른바 고소설과 내용적, 형식적으로 일정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통과 근대는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이 때문에 근대적 소설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신소설의 성격에 관한 연구 중 신소설이 초기에는 계몽성, 정론성이 중심을 이루다가 후기 작품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진다고 보는 견해도 신소설을 일종의 결핍의 문학으로 본다는 점에서 조동일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8)

조동일은 이러한 신소설 한계는 신소설이 “교훈적인 서사이면서 흥미 위주의 오락적 소설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9) 신소설이 지닌 한계의 원인으로서는 텍스트의 이중성, 즉 ‘오락성’과 ‘교훈성’의 마찰로 보았는데, 이는 ‘저급함’과 ‘고급함’이 하나의 텍스트에 상존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때문에, ‘고급함’을 담보해 낼 수 없는 신소설의 경우에는 근대 소설로서는 ‘혼돈’과 ‘결핍’을 동시에 안고 있는 과도기적 문학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급함’과 ‘저급함’을 나누는 기준은 근대적 소설 장르로서 텍스트의 완성도와 텍스트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성을 들 수 있겠다. ‘근대’는 엘리트에 의해 ‘민족’, ‘국가’, ‘정치’와 같은 남성적 담론으로 발명되고 또 주도되었다. 이러한 담론이 끊임없이 ‘상위문화’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근대담론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담론이 부재한 문학작품을 ‘하위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계몽성과 정론성을 잃어버린 신소설이나

7) 조동일, 『한국 문학 통사』 4, 지식산업사, 1982.

8) 김현·김윤식, 『한국 문학사』, 민음사, 1998.

9) 조동일, 앞의 책, 154-155쪽.

딱지본 대중소설은, 때문에 문학 담론의 지평에서 사라졌고 그 사회적, 역사적 의미도 상실한 것이다.

최근, 이와는 다르게 대중소설에 있어서 계몽성이 사라지고, 소위 상위 문화로서의 가능성을 소멸하게 한 사회적 배경으로 1907년 일제가 시행한 <신문지법>과 1909년 <출판법>을 통한 검열을 들고 있는 연구도 있다.<sup>10)</sup> 물론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며, 일제의 검열이 대중소설에 있어서 정치적, 계몽적 요소를 배제하게 한 실제적인 정치적 힘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 경향이 갖는 한계는 문학작품의 생산자적 측면이 아닌 소비자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이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이론만 가지고는 딱지본들이 상품성을 띄고 수많은 수용자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sup>11)</sup> 필자는 현실을 살아가는 대중들에게 근대는 첫째, '상위담론'

10) 이주영은 신문지법과 출판법의 시행 이후 출판물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출판사들의 성격이 검열을 피할 수 있는 특정 부류의 소설만 출판하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한다.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1) Micheal Robinson은 1930년대 한국의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의 확산과 이에 대한 대중의 적극적 수용모습 그리고 이것이 일제의 문화 정책에 가져온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는 기존의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지배/저항의 대립항으로만 해석되었던 것에 비해, 식민시기를 보다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Micheal Robinson, "Mass Media and Popular Culture in 1930s Korea: Cultural Control, Identity, and Colonial Hegemony," in Dae-sook Su, ed. *Korean Studies: New Pacific Curr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대중 문화에 있어서 적극적 수용자의 입장에서 세밀한 분석을 한 해외 연구로는 Janice A. Radway,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4, 참조. Radway는 할리퀸 문고와 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할리퀸 문고가 억압받던 가정 내 여성들에게 주었던 의미와 이들 중 일부 여성이 어떻게 할리퀸 작가로 데뷔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표현하였는지에 관하여 심층

이 상정하거나 제시한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일정한 방식으로 체화되었다고 본다. 둘째, 딱지본 대중소설의 독자들, 소위 '저급' 문학을 향유하는 계층이 추구하는 지향성이나 취향이 '고급' 문학과는 달랐을 것이라 본다. 즉, 본격 근대 소설의 등장과 엘리트 독자와는 별개로, 대중화된 신소설이나 딱지본 대중소설을 즐겨 읽었던 독자 계층이 존재했고 이들의 주 관심사와 취향이 대중적인 텍스트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sup>12)</sup>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신소설의 계몽적 성격보다는 대중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대중소설의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엘리트적 근대 담론의 형성에 관하여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sup>13)</sup>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딱지본 대중소설을 읽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을 통하여 텍스트 내에 상존하는 근대의 혼란상과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해내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주인공의 모습에서, 담론으로서의 근대의 모습이 아닌 생활인으로서의 현실감(Reality) 있는 근대의

적인 연구를 하였다.

- 12) 이러한 의미에서 천정환의 근대 독자 탄생에 관한 비교적 세부적인 연구는 한국 근대문학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 역사, 2003
- 13)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적 성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이 논문은 신소설의 성격을 대중성에서 파악하고 그 대중성의 중심을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좀더 자세한 텍스트 분석으로는 고은진의 논문 참조 (고은진, 「신소설 <추월색>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양상- 사랑을 지키기 위한 여성주인공의 수난」, 고려대학교 BK21 한국학교육연구단 한국학 심포지엄 발제문, 2005.) 그러나 신소설에 있어서 계몽성이란 성질 또한- 그것이 비록 피상적인 수준에 머문다 하더라도- 신소설의 중요한 성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미 대중화, 통속화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후기 신소설에서 "개화" 혹은 "계몽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관한 면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로 "계몽성"이 농후한 작품으로 - 예를 들어 『무정』과 같은- 평가되는 작품에 있어서의 대중적 성격에 관한 연구 또한 필요해 보인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필자가 느꼈던 현실감이란 첫째 소설의 주인공들의 눈에 비쳐진 '근대'의 모습과 그 혼란상이 여타 고급문학의 그것에 비하여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딱지본 문학에 있어서 '혼란'은 근대에 나타난 실재적, 물질적 생활의 변화와 이전시대의 윤리관이나 세계관이 일으키는 마찰에서 비롯된다. 필자는 근대 초기에 구시대의 윤리관, 세계관 그리고 생활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또한 새로운 문물들이 일상생활을 급속하게 파고들었던 근대 초기, 딱지본 대중소설의 '혼돈'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각 소설에 나타난 혼돈의 양상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딱지본 소설 서사의 중심이 '혼돈'과 이를 극복하는 통로로서의 환타지(fantasy)에 있다고 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독자에게 어떠한 식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충족감을 주었는가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의 딱지본 대중소설의 연구는 다음 세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딱지본 대중소설의 다소 엉성하고 파편화된 형식과 내용 그리고 혼란의 모습들 자체가 오히려 근대화 시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다는 점, 둘째, 소위 '무정' 이후의 고급 문학에서 나타나는 정제되고 내면화된 근대의 모습들 외에, 대중에게 받아들인 생활인으로서의 근대의 의미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문학작품, 특히 대중 문학은 표현(expression)임과 동시에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입장에서<sup>14)</sup>, 딱지본 대중소설을 통해 드러난 대중들의 욕망과 욕망실현의 과정을 보다 생생하게 살필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판타지를 추적함으로써 딱지본 대중소설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

14) Peter Brooks는 대중물의 하나인 멜로드라마가 일반 대중의 욕망을 표현하고 동시에 재현하는 도구가 된다고 설명한다. Peter Brooks, *Melodramatic Imagination: Balzac, Henry James, Melodrama and the Mode of Excess*, Yale University Press, 1976.

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담론으로서의 근대를 넘어서 보다 실질적 의미의 근대의 모습을 추적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 2. 연구 대상 및 논의 방식

이 글에서는 딱지본 대중소설로서는 초기인 1914년에 출판된 『절처봉생(絶處逢生)』과 1930년대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의 몽(夢)』, 그리고 『북간도의 누·일명 용정촌의 설음』을 위주로 텍스트 분석하고자 한다. 이 세 작품은 모두 더 이른 판본이 있지만 필자가 읽은 판본은 세 작품 모두 1952년에 세창서관에서 발행된 것이다.<sup>15)</sup> 필자가 읽어본 딱지본 대중소설은 대략적으로 가족 비극이나, 여성의 수난 혹은 남녀의 애정관계를 그리고 있다. 여기에, 전혀 다른 종류의 딱지본 대중소설로 번역 혹은 번안된 탐정물과 추리소설류가 추가된다. 이 중 위 세 작품은 소재 면에서 보았을 때 각각 가족 비극, 남녀 간의 애정관계 그리고 여성의 수난에 해당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절처봉생』은 필자가 읽은 딱지본 대중소설 중 그 출판 시기가 가장 이르다. 소설의 배경은 청일 전쟁 시기로 추정이 되고, 전쟁 때문에 헤어진 한 가족이 다시 만나기까지 겪는 여러가지 사건을 비교적 장황하게 다룬 이야기이다. 『북간도의 누』는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딸이 북간도에 몸을

15) 『절처봉생』은 그 첫 페이지에 '박문서관 편집'이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1914년에 박문서관에서 출판, 1921년 재판된 것을 1952년에 세창서관에서 새로 편집하지 않고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절처봉생』의 경우 1914년본과 1952년 본은 동일한 것이다. 『황금의 몽』은 1935년 이전, 『북간도의 누』는 1936년 이전에 발간된 것을 1952년에 재발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의 앞선 버전은 찾지 못했기 때문에 1952년 세창서관본과 같은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팔자 아버지가 역경 끝에 재산과 딸을 찾게 되는 이야기이다. 딸이 기생으로 팔려간다는 점에서는 신파적인 내용이 예상되지만, 실제 내용은 아버지가 재산과 딸을 찾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황금의 몽』은 가난에 찌든 남자주인공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부자 집 여인에게 장가를 가서 부와 명예를 얻는다는 내용이다. 현대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신데렐라 스토리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재미있는 작품이다.

『절쳐봉생』과 『북간도의 누』 그리고 『황금의 몽』은 출판시기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작가의 태도도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절쳐봉생』의 경우에 출판시기와 시대배경이 가장 앞선 만큼 다른 작품에 비해 고소설적인 요소가 가장 빈번히 나타난다. 특히, 문체구사나 우연이 반복되는 상황설정 등에 있어서는 고소설적 성격을 짙게 띠고 있다. 이러한 고소설적 요소 때문에, 『절쳐봉생』을 딱지본 대중소설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의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딱지본 대중소설이 공통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서두로 시작하고 근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절쳐봉생』은 분명 고소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절쳐봉생』을 딱지본 대중소설의 하나로 다룰 것이다. 『북간도의 누』는 ‘일본영사관의 보호’를 통해 딸을 찾게 되는 과정과 일본에 의해 채택된 근대 제도에 관한 신뢰를 보이는 등 노골적이지는 않으나 약간의 친일적 경향을 보인다. 또한, 근대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과 이에 따른 일상생활에 관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황금의 몽』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순응하는 인물형, 특히 고리대금업에 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장한몽』이나 많은 딱지본에서 고리대금업자를 ‘악인’의 유형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에 반해, 『황금의 몽』 고리대금업자를 근대에 ‘성공’한 인물형으로 묘사하고 있다.<sup>16)</sup> 이렇게, 이 세 작품은 각각의 작품에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안고 있는 이 세 작품을 동등한 관점에서 서술하되, 그 상이성과 차이, 특히 1910년대와 30년대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자세한 상황의 차이점을 고려하며 세 작품을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 틀로서 우선 이 세 작품은 우선 다른 딱지본 대중소설에 비해 '여성 수난'을 위주로 한 신파적 서사구조가 현격히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많은 수의 딱지본 소설이 '00의 눈물,' '00의 누,' '00의 설움' 등 제목에서부터 수난과 슬픔을 전면에 내세우며 실제로 그러한 정서나 상황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에 비해서, 이 세 소설의 내용은 그러한 신파적 특성이 텍스트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난의 원인이 근대 사회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임을 비교적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서구문화, 문물의 유입과 사회, 국가 제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신들의 당혹감 내지 혼란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때문에, 신파적 소설이 주로 '여성의 수난과 눈물'을 위주로 했다면, 위 세 작품은 주로 '남성의 수난과 눈물' 위주의 독특한 구조로 되어있다. 남성이 더 이상 외부세계의 주체로 자리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들이 겪는 심적, 물적 박탈감은 '남성적 눈물' 혹은 '시대의 비애'로 표상된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으로 신파적 구도가 '눈물과 비애'의 한탄구조 내지는 비극적 결말로 끝을 맺는 것에 반해, 이 세 작품은 모두 남성 위주의 판타지(fantasy)를 통하여 현실의 불가능성(impasse)를 극복하고, '세상이 나에게 맞춘다'는 식의 다소 황당한 세상을 그려냄으로서 해피엔딩을 추구한다.<sup>17)</sup> 이러한 남성 위주의 판타지를 결말로 하는

---

16) 위 세 작품의 출간연도나 작자에 관한 추적이 이루어진다면, 각 작품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설명이 가능하리라 본다.

서사는 남성들, 특히, 새로운 시대의 주체인 '청년'이나 '소년'등의 '오빠' 계열에 낄 수 없는, 혹은 변화가 불가능했던 남성형 혹은 세대들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 소설은 '오빠'들의 새로운 가치인 '아버부정' 혹은 '정치적 고아의식'<sup>18)</sup>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세대를 대변하거나 -『절쳐봉생』, 『북간도의 누』- 아버지 세대에 묶여있는 오빠 세대 -『황금의 뭉』-들이 가지고 있던 욕망들의 실현하는 문화적 공간이자 소극적 현실 극복의 통로로 보인다.

본고는 이 세 텍스트의 이러한 특성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었는가에 주목하며, 근대 초기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대중들과 그들의 시대에 관한 혼란상 그리고 그들의 솔직한 욕망, 판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혼란의 시대 - 개화세상

딱지본 대중소설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근대의 표상이었던 '개화(enlightenment)'에 관한 주인공의 비 일관적 태도에 있다. 딱지본 대중소설의 경우에는 초기작과 후기작을 불문하고 '개화'에 관한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 중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개화'의 표상은 '계급의식의 변화', '자유연애,' 그리고 '남녀평등'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기

17) 이경훈은 이광수, 최남선 등을 선두로하여 근대에 등장한 새로운 청년세대와 이들의 시대를 '오빠'의 탄생 시대로 보았다. '오빠'는 실제적으로 이들 세대뿐만 아니라 이들이 형성했던 문화 또한 포함시키는 개념이다. 이경훈, 『오빠의 탄생: 한국 근대 문학의 풍속사』, 문학과지성사, 2003.

18) 권명아는 한국 지식인들의 근대적 기획의 전통은 주로 유교적인 것과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근대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광수 등에 주창된 '아버부정'이나 '정치적 고아의식'은 이들이 근대적 가족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되었다.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14쪽.

대중들에게 '개화'가 불러온 새로운 가치와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와 이에 따른 생활의 변화나 이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화'는 일종의 '진보적 소재 (progressive motiff)'가 이야기 거리의 형태로 이용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근대적 개념들이 '내면화(interiorized)'되어 표출되었다기 보다는 대중화되고 일상화(naturalized)된 근대의 풍경을 다름으로서 대중들에게 일종의 '새로운 감각'으로서 다가갔고 이러한 점이 상업화의 요인일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딱지본 대중소설에 있어서 '개화'의 모습은 다소 피상적으로 또한 혼란스런 형태로 나타나면서 근대의 모순적 역사, 문화 상황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모순의 상황은 구시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세대 혹은 아버지 세대에게 묶여있는 '오빠'의 눈으로 그려졌다.

『절쳐봉생』, 『북간도의 누』와 『황금의 몽』의 남자 주인공은 모두 몰락한 양반계층으로 설정되어있다. 천정환은 음독을 위주로 했던, 방각분의 독자계층이 딱지본 소설의 독자로 이어졌을 것으로 파악하는데<sup>19)</sup> 그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세 소설에서 남자 주인공이 모두 몰락한 양반으로 설정되어있는 것은, 이 작품들의 작가가 이러한 신분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몰락한 양반 계층이란 '구세대'의 표상이면서, '새시대'를 받아들이기 힘든 '아버지 세대'를 대표한다. 그리고 새 시대에 부적응하는 이들 소설의 주인공들은 새로운 세계 즉, 개화와 자본주의가 판치는 사회를 실제적으로 접하면서 겪는 '물질'의 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주목하고 있다. 이 세 작품은 모두 근대화의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분 서울을 중심으로 그 혼돈상을 보여주는데, 특히 근대국가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사회상의 급변화에 대한 주인공의 부적응과 비참할 정도의

---

19) 천정환, 앞의 책.

경제적, 사회적 곤궁함과 상실감을 그 시작으로 한다. 근대는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남성 세대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이고 또 대응하기 힘든 불가항력에 가까운 것이었다. 근대 문학 혹은 대중 서사에 있어서 주체성(subjectivity)을 상실한 무능력한 남성상은 근대를 후주자로서 더구나 식민지인으로 살아낸 조선의 현실에서는 흔히 보이는 인물상이다. 이상의 <날개>속의 남성 주인공이 보여주는 정신 분열적 자화상은 이러한 식민지인의 자기 분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그러나 딱지본 소설에서는, 그러한 무능력의 원인이 근대화의 후주자라는 비판이나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재적으로 가부장이 가족의 생계 즉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질 수 없다는 실생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세 소설의 남성 주인공은 모두 기존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자본주의적 세계의 질서 앞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부적응하는 '가장'이다. 『절쳐봉생』의 주인공 이중협은 "아모 판서의 손자요 아모 참판의 아들노 양반은 내외가 없다구하나 본디 청백하니 자손으로 형세가 극빈키 똥구 먹이 찌여지게된터"로 설정이 되어있다. 『황금의 몽』의 주인공 윤시연은 고등학교까지 마쳤으나 직업을 얻지 못해 몇 날 며칠을 굶은 인물이며, 『북간도의 루』의 주인공 하희영도 원래는 부자였으나 친구에게 속아 가산을 날리고 반신불수까지 걸린 인물로 묘사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근대의 소설에 만연한 무능력한 남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황금의 몽』의 윤시연의 경우에도 신신 교육은 받았으나, 실재적으로 노모를 모셔야하므로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인물로 설정이 되어있다. 즉, 이들은 모두 근대에 살고 있으나 근대에 적응하기 힘든 인물들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개화'란 곧 '상실'과 '절망'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그들이 '새 시대'에 대한 부적응의 원인은 우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적, 경제적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음은 『절쳐봉생』의

한 대목이다.

이진스가 술막쟁이 놈에 완만하고 그드랍피여 반말로 대답하는 것을 보니 쾌심쾌심 평시 갓트면 당장 잡아내라 끄러올니라 호령이 나오건만은 내일 밧버흔데 방해라고 물어볼 말이 흐도 긴급해서 분함을 억지로 참고.<sup>20)</sup>

이 대목은 양반 신분인 주인공이 조선 시대로 치면 상민 신분인 주막 주인에게 반말로 말을 했다가 공손치 못한 반말로 응대를 받은 후에 분해하는 장면이다. 양반으로서 특권을 잃어버린 이진사는 상놈이 자신에게 반말을 해서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세상의 변화를 알기에 하는 수 없이 주막 주인에게 사과를 한다. 시대가 바뀌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황금의 몽』에서 남자 주인공 윤시연은 며칠을 굶을 정도로 처절한 가난한 생활을 한다. 뭔가 돈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집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다가, 결국 다 떨어진 책 한권을 찾아낸다. 그는 이 책을 고본매립소에 팔러 가지만 몇 장이 찢겨나가 있어서 팔지도 못하고 절망에 빠진다. 다 떨어진 책을 팔러 간다는 설정은 다소 해학적이기도 하지만, 이는 과거에 책만 읽으며 고고함을 유지하던 선비적 가치가 근대에 들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암시한다. 윤시연이 더욱 절망감에 빠지는 것은 돈이 없는 상황과 더불어 바뀐 시대적 상황이며, 양반이란 신분이 자신과 가족에게 더 이상 아무런 특권을 주지 못한다는 절망감이다. 또한, 윤시연은 비록 '청년' 세대에 속하기는 하지만, 거동조차 할 수 없는 노모를 모셔야하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과 같은 '새 시대'의 일꾼이 될 수 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절망하고 분노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20) 『절쳐봉생』, 세창서관, 1952, 43쪽.

다. 즉, 근대가 불러온 여러 가지 사회변화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양반 혹은 '아버지' 아버지에게 묶인 '오빠'의 입장에서 신분제의 붕괴는 상실의 시대로의 도입을 의미하고,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양반/아버지/가부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특권과 사고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들 구세대 남성에게 있어서 '남녀평등'의 가치나 '자유연애'의 문제는 그들에게 더욱 혼란과 부적응을 가중시킨다. 혼란의 원인은 이전시대 자신들의 활동 무대였던 사회에, 여성들이 등장함에 대한 당혹감과 새로운 시대의 윤리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구시대적 윤리관이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딱지본 대중소설에서는 남녀평등관이나 자유연애를 추구해야할 근대의 덕목으로 상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특히, 남녀 평등이나 자유연애 등의 근대적 가치를 기본으로 한 혼인관이나 혼인제도는, 가치관과 문화의 전달 통로로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1910년대에 발간된 『절쳐봉생』의 경우에는 1930년대에 발간된 『황금의 뭉』에 비해 근대적 혼인제도의 의미에 관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는 개가법과 조혼금지 제도에 관한 작가의 상반된 목소리에서도 알 수 있다. 남자 주인공 이진사는 금강산 구경을 갔다가 우연히 여승 이경란을 만난다. 그녀는 13살에 청상과부가 된 여인인데 그 부모는 경란이 나이가 들어 '가슴뜨거운 짓'을 벌일까 두려워 절로 보낸 상태였다. 그러나 '제국신문'을 읽던 경란의 어머니는 근일에 개가법이 터져서 양반집 과부가 새로 시집을 간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인다.

“세상일이 일얼줄 알엇더면 우리 경난이도 어드로 보내지 말고 집에 놋두엇더면 다시 식집이나 보내여 보고 십을띠 자조보기나 호고 이

처럼 속에 병이나 아니되지오”

“허 세상사가 이렇케 변할 줄 누가 알엇단 말이요”<sup>21)</sup>

위는 신문을 읽고 난 후 경란의 부모가 주고받는 대화이다. 개화와 함께 다가온 개가법은 당시 과부가 되거나 소박맞은 젊은 여인들의 몸을 옥죄고 있던 재혼 금지의 유교적 질서를 붕괴함과 동시에 일정한 양의 자유를 여인들에게 허용했다. 소설 속에서 이러한 개화의 바람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딸을 여승으로 만든 경란의 부모의 입장은 후회와 한탄 일 수밖에 없다. 이는 개가법이 사회에 일으킨 긍정적 요소를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가법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조혼 금지법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진사가 결말에서 딸을 가까스로 찾았을 때, 그는 근래의 혼인법이 옳지 않다고 하며, 조선인은 조선인의 풍습을 따라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조혼금지법’이 실행되기 전에 얼른 딸을 시집보낸다. 작가의 이러한 일관성이 떨어지는 태도는 ‘남녀평등’의 진정한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 각 사안에 일관되지 않은 선택을 함으로서 자신의 상황에서 유리한 것을 취하는 매우 세속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1930년대에 발간된 『황금의 꿈』의 경우에는 이미 자유 결혼(자유 연애와는 다른)이 사회화되고, 정착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여주인공 정순의 혼인관에 관한 사설에서 드러난다. 그녀는 적합한 남편을 얻지 못하면 그저 남편으로부터 구속만 받을 수도 있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살겠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마침내 정순은 어머니의 허락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배필을 구한다. 그녀가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를 보필할 만한 남성을 직접 고르는 것은 매우 진취적이며 개혁

---

21) 위의 책, 93쪽.



적인 인물상을 형상화 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분명 정순은 '남녀평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정략결혼을 거부하는 자유연애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위와 같은 시대적 차이점은 있으나, 두 작품 모두 남녀평등을 기반으로 한 '자유 연애'에 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즉, '남녀평등'적 가치의 일부는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윤리관'의 범주를 침범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어머님 과연 이 세상 사람은 미들 수 업습니다 만약에 남편이란 자를 어딴다가 만일 불량할것갓흐면 그 원수를 잊지함닛가 제 안목이 비록 박지는 못하오나 지금 대학생이고 전문학생이고 중학생이고 하나도 심정이 바른 자는 업세요 행길로 녀학행이 지내가면 눈을 바로뜨고 가는 자가 하나도 업습니다 그 중에 더욱 심한 자는 연애편지까지 보내는 불량자까지 있습니다.<sup>22)</sup>

위의 인용문은『황금의 몽』에 나타난 정순 '자유연애'에 관한 시선이다. 정순은 배필을 스스로 구할 능력과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로 '자유연애'를 구가하는 남성들은 '불량하다'고 보고 있다. 즉, 정순은 '자유연애'를 일삼는 무리를 '풍기 문란'을 조장하는 자들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정순은 '조선의 부녀자를 깨우기 위해' 동경의 사범학교에서 공부까지 한 신여성이지만, 남녀사이에 정열이 일어 행하는 '자유연애'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작가는 '연애사건'을 윤리와 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유시연의 동경에서의 스캔들을 처리하는 작가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유시연은 정순의 돈으로 동경유학을 하게 되는데, 난생처음 옥희라는 여인과 '자유

22) 『황금의 몽』, 세창서관, 1952, 13-14쪽.

연애'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약혼자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거절한다. 때문에 편지로서 '자유연애'할 것을 솔직히 고백한 옥희는 '배은망덕한 부정녀'로 설정되고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된다. 결국, 작가는 정순과 시연은 근대적 인물로 설정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근대적인' 인물은 죽게 만듦으로서 일종의 근대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

그러나 『황금의 뭉』의 정순과 마찬가지로, 『절쳐봉생』에서도 '자유연애'란 가치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자유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으킨 이중협의 심적 갈등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는 이중협과 경란의 만남에서 잘 보여진다. 두 인물이 만난 직후, 대담하게도 경란은 이중협이 자신의 연분인 것 같으면서 동침을 제의한다. 이중협은 경란이 대담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싫지는 않지만 이러한 '자유연애'는 이중협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에게는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갈등한다. 그는 이 상황에서 만약 '개화'된 신식 남자라면 당장 경란의 침소에 들것이라고 하며 당시에 '자유연애'에 들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신세대 남성들을 비판한다.

개화세상이라닛가 덩말 개화가 무어신지도 모르고 모양만 내면 개화인 줄만 알고 속에 똥만 든 것들이 하이칼라니 상고머리니 닷새도리로 깎고 낙가오리보시에 각색모직으로 철철이 갈녀입고 제 부형이 땀이 나도록 모은 세간을 헐가방 피하여 일이백환식 헛덱게 접첩혀 죽기 속에 이저리 늦코 중려단장에 구쓰를 뺨겨 서실있게 오늘은 금홍이 집으로 가자 옥희의 집으로 가자 밤낮 일알 삼고 다니는 자식덜 갖트면.<sup>23)</sup>

그러나 이중협이 이들을 이와 같이 실랄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

23) 『절쳐봉생』, 74쪽.

그는 다음날 '어쩔 수 없는 척' 하며 경란의 침소에 든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돌연한 정사로 만난 여인을 '애인'으로 둘 수 없는 상태인 이중협은 그녀를 첩으로 맞아들인다. 이는 매우 아이러니컬한 행동이다. 결국, 개화기에 다소 난잡하게 연애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이진사와 같은 인물에게 '연애'는 과거의 제도인 처첩제로 밖에 수용이 될 수 없는 것이다.<sup>24)</sup>

'개화'의 가치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신분적 특권과 기존의 가치를 상실한, 그리고 신지식이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망(perspective)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대중/구세대 남성들에게는, 개화란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었고, 또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관한 철학이 부재한 상태였다. 딱지본 대중소설에서는 이런 입장이 솔직하게 그려져 있고, 개화를 받아들여 한다는 무조건적인 강박관념이 지배한다기보다는 나름의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일관성이 떨어진 혼란의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 4. 소원성취의 공간-무능력한 남성들의 환상 (Fantasy)

필자는 딱지본 대중소설이 '민족,' '국가,' '정치' 등의 남성적 담론이 대체적으로 부재한 텍스트라 언급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지만 개화의식에 관해서도 매우 혼란된 양상을 보인다. 물론, 딱지본 대중소설들이 이런 심각한 담론들을 텍스트 내에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엘리트적 담론의 규율에 포함

24) 이러한 이상한 자유연애의 당사자인 여성들은 '제 2부인'이라 불리웠다. 연구공간 사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216-219쪽.

되지 않는, 텍스트 내에 이러한 담론들을 대체/혹은 부재시킬 만한 매력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전대소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의 등장과 이에 따른 역경,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의 새로운 구원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남성적 상위 담론에 있어서는, 국권 상실의 구원자적 역할로 민족이라는 담론이 존재했듯이, 딱지분 등의 대중물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구원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딱지분에 나타난 대부분의 갈등의 양상은 '국권 상실'과 같은 추상적이고 집단적인 어떤 것이 아니었다. 개인들은 지극히 실생활적인 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고,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표출된 딱지분에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오히려 실질적이고 단선적이기에 그 구원의 모습은 실생활인으로서 근대를 살아가는 많은 독자들에게 오히려 매력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구원의 모습은 소설의 내러티브에 여러 가지 판타지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는 고소설과 같이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힘 등을 통해서가 아니고, 실제적이고 속물적이며 명확한 통로를 통해서이다. 때문에, 그들의 판타지는 남성에게 있어서는 상실한 사회적 지위와 "부"에 구체적인 성공담이 주를 이루고,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남성의 아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근대의 주체로서 서지 못했던 남성들의 윤리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황금의 뭉』의 서두와 말미에는 아래와 같은 작가의 주석이 달려있다.

약육강식으로 큰놈이 중치를 먹고 중놈이 작은 놈을 먹어도 제지하지를 아니한다. 그러나 오직 동물중 사람은 그러치 아니하여 아모리 배가 곱홀지라도 마음대로 남에 것을 범물로 또는 염치로 양심상 먹지를 못한다...사람이란 분수박계 허영을 탐내면 실패를 하는지라 엇지 경계할 일이 아니랴<sup>25)</sup>

소설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타난 작가의 이 주석은 인간이 당위적으로 추구해야하는 윤리적 덕목은 물질적 분수와 인간의 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육강식 자본주의 세계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약육강식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들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매우 악한 사람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황금의 몽』과 『북간도의 누』의 남성주인공들은 모두 고리대금업자에게 몹시 시달림을 받고 괴로움을 당한다. 이는 실제로 고리대금업자가 악했다기 보다는 남성 주인공들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당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고리대금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물적이지 않고 순박한 남성주인공들이 살 수 없는 각박하고도 감당하기 힘든 세상으로 그린다.

그러나 실제로 『황금의 몽』의 남성주인공의 결말만을 따져본다면, 남성주인공은 맨입으로 부와 명예 그리고 여자까지 모든 것을 일시에 성취한다. 다만, 이런 성취의 과정이 고리대금업자의 그것과는 다르다. 작가는 물질적 욕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노골적이지 않고 '점잖게' 체통을 지키며 드러내야 합당한 것이라는 이중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황금의 몽』의 두 남성 주인공인 유시연과 이재경의 인물형을 비교해보면 비교적 쉽게 나타난다. 유시연과 이재경은 둘다 재주가 있고 학식이 있지만 '부(富)'가 없는 청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부자인 정순의 배필로서 서로 강적이 된다. 그러나 이재경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에대한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로 묘사되는 반면, 유시연은 똑같이 정순의 배필이 되고자하는 욕망이 있지만 이를

---

25) 『황금의 몽』, 1쪽, 78쪽.

드러내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오히려 유시연의 욕망은 노모의 “에 그 네가 그 집 사위만 되어서가면 나는 내일 죽어도 한이 업겠다”라는 말과 이에 대한 암묵적 동의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작가는 ‘선비적인’ 태도로서 부를 추구한 유시연의 손을 들어준다. ‘돈’을 너무나 갈망했던 이재경은 죽이고 반대로 유시연은 돈, 여자, 명예라는 세 가지를 모두 갖게 된다. 이러한 결말은 결국, 유시연과 같은 선비적 태도를 지닌 인물은 근대에 적극적으로 적응했던 이재경과는 실질적인 경쟁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경을 악인으로 유시연을 선인으로 묘사하고, 악인을 처단하는 모랄로서 이러한 불가능의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일종의 판타지인 셈이다.

이러한 작가적 태도는 『절쳐봉생』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난리 통에 경제적 무기력함으로 인하여 맨발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적극적으로 가족을 찾을 생각은커녕 오직 죽을 생각만하고, 죽기 전에 금강산 유람이나 하겠다는 등 이진사는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가부장의 모습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결말은 남의 도움을 통해 -부동산 투자와 은행 예금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를 획득하고, 우연히 가족을 찾고, 아리답고 젊은 첩까지 얻는데다가 성균관의 교수까지 되는 행운을 누린다. 그러나 실재적으로는 남성은 그대로 무능력의 상태 속에 있고, 성공은 행운일 뿐 주인공의 적극적 변화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딱지본 대중소설은 근대사회에 있어서 구식 남성의 성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작가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모습은 너무나 천박하고 약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그러나 주어지면 행복하겠다는 소망의 끈은 버리지 않는 것이다.

『북간도의 루』의 주인공 하회영도 앞의 주인공들과 마찬가지로 무능

력할 뿐만 아니라, 신체까지 반신불수이다. 무기력한 아버지 하희영은 자신의 빛으로 인해 딸까지 팔아먹는 결과를 맞는 비극적인 남성이다. 그러나 소설은 이런 비극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하희영이 어떻게 재산과 딸을 되찾는가에 대한 서사에 중심을 두고 있다. 『북간도의 루』에서 남성 주인공이 무기력한 것은 앞의 두 소설과 일반이나, 다만 하희영의 조력자는 다름 아닌 근대 경찰제도와 사법제도에 있다는 것이 다르다. 하희영은 초반에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남성이나, 중반 이후에는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류경화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정도의 기지는 발휘한다. 그리고 용정촌의 일본영사관에 보호감호를 받고 있던 딸까지 경찰제도의 도움으로 되찾게 된다. 물론, 하희영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것은 일종의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의 문제를 풀어준 것은 근대 제도이지 본인의 적극적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재산과 가족을 되찾았으니 행복한 결말이지만, 이 또한 근대 제도를 통한 우연한 성취이다.

더구나, 이 세 소설에 있어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남성주인공들의 행위 구조나 행동의 지향성은 무척 애매한데에 반해, 그들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근대적 인물 혹은 제도는 그들 무력자들을 향해 활짝 열려있다는 점이다. 『황금의 몽』에서는 돈 많은 과부의 딸이자 근대 교육을 받은 정순이라는 여성이 유시연의 구원자인데, 그녀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도 밝고, 사람을 보는 눈썰미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무척이나 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과 혼인을 하고 싶냐고 묻는 어머니의 말에 정순은 이와 같이 대답한다.

“저는 학식도 그리 취치 아니하고 인물도 취치 아니하고 재산도 취치 아니하고 문벌도 그리 취치 아니하고 중등 계급 이상으로 외국어로

말하면 통정이나 할 만하고 지식으로 말하면 남과 상대함직한 자로  
정작단아만하면 가합할줄로 압니다”  
“아니 네 말대로하면 가난한 집이라도 관계치 안탄 말이나”  
“네..(중략)”<sup>26)</sup>

이들 모녀의 대화를 언뜻 들으면, 정순이 “부”라는 것에 초탈한 이들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대화의 중심은 자신의 재산을 지켜나가기에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가를 찾는 데에 있다. 즉, 정직하기만 하지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유시연이 모녀에게 남편감으로 발탁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실리적인 계산위에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듯, 세상 돌아가는 것에 이처럼 민감한 근대적 인물이 구시대의 무능력한 인물에게 우호적인 손을 내밀고, 구시대 인물에게는 이를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게 되는 셈이다. 『절쳐봉생』에서도 이중협의 재산을 불러주는 것은 다름 아닌 과거에 이진사를 모시던 박선달이다. 박선달은 이중협이 비싼 값에 팔아서 집값이 싼 다른 곳에 집을 사고, 나머지는 은행예금을 해준다. 이러한 근대적 경쟁력이 있는 중인계급의 사람이, 시대가 바뀐 후에도 여전히 이전 구시대의 주인에게 충복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설정 또한 매우 흥미롭다. 『북간도의 루』에서는 근대 경찰제도와 사법제도 그 자체가 위기를 극복하는 활로가 되는데, 이는 ‘돈’ 위주로 굴러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능력한 아버지 하희영도 근대적 제도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경제적 위기에서 스스로 탈출할 능력은 없어도, 일부의 근대제도는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희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적 인물이나 제도를 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작

---

26) 『황금의 몽』, 14쪽.



가는 필요이상으로 구체적인 서술을 함으로서 작가문학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생활인으로서의 경제생활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황금의 뭉』에서 정순모녀의 재산이 “땅은 업스나 현금으로 삼십만원”이라고 기술하거나 “요즘은 xx동이 땅값이 비싸다더라”라는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거나, 『절쳐봉생』에서 박선달이 이중협의 집을 판 돈이 6500환이고 집을 산 금액이 450환이었다고 명시한 것이나, 『북간도의 루』에서 하회영이 친구에게 주었던 출자금 2000원이고 이자는 얼마라는 식의 구체적인 서술 등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서술은 주인공이 입체적인 인물이지 못하여 생기는 밋밋한 이야기 형식에 일종의 생기를 부여하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보여주는 생동감과 성공의 현실성은 독자에게 일종의 쾌락을 제공하면서 소설에 더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일본 유학”이라는 주제도 일종의 딱지본 소설에서 구원자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신소설 <추월색>에서 정임이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으로 도피하는데, 이는 동경이라는 장소가 자신의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일종의 구원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동경 유학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신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근대의 공간이기도 하고 주인공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다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일본 유학이라는 소재가 등장하는 딱지본 소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좀 더 실질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sup>27)</sup> 형태는 추월색의 그것과 비슷하나, 실제로 딱지본 대중소설에 있어서, 유학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유

27) 흥미로운 점은 유학이라는 테마는 딱지본에 자주 등장하는 ‘만주’라는 공간과 대비될 수 있는데, 둘 다 현실에서 도피/ 피신하여 숨는 공간이지만, 많은 경우 만주는 범죄와 악행의 공간이기에 주인공의 ‘역경’을 더욱 심화시키는 공간이지만 ‘동경’은 긍정적인 기회의 공간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학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 유학을 하고 돌아왔을 때 가질 수 있는 특권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황금의 몽』에서 정순과 정순모는 상당한 '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여자 둘이 살고 있기에 사위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정순모는 항상 "사위를 었던자로 어드면 이 재산을 잘 유지하고 조흔 사업을 하여볼가"라는 고민을 하는데, 막상 유시연과 같은 사위를 얻자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

지금 재산만 가져도 유족한데 곳치안케 대금업을하여 무엇하나 시연 씨로 말하면 고등과까지만 맞치엿다니 이곳에 잇서 대금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동경 가서 공부를 더하는 것이 조치아니할가<sup>28)</sup>

정순과 정순모는 이미 재산으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 남편을 얻은 이상 한 단계 상승된 생활을 꿈꾸는데, 이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통한 자신들의 신분 상승이다. 남편을 만나기 전 자신이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는 조선의 부녀자를 개화시키겠다는 큰 꿈이 있었지만,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이상, 남편을 유학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의 목적도 그저 "조치 아니할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그들의 생계의 원천이었던 '품위 없는' 고리대금업을 정리함과 동시에 자신의 학업도 미련 없이 그만둔다. 결국 앞서 남녀평등을 부르짖던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던 정순은 대신 남편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현모양처형으로 탈바꿈 되는 것이다. 비록 옥희와의 스캔들이 동경 유학생들의 흠으로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결국 부와 남편과 아내라는 탄탄한 사회적 지위를 얻은 정순은 "참 사랑의 락원을

---

28) 『황금의 몽』, 64쪽.

건설"하고 행복하게 산다. 동경 유학은 상징적으로는 새로운 학문과 생활을 배울 수 있는 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순과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는 교두보이며 환상의 공간으로 그려진 것이다. 이는 정순의 환상일뿐만 아니라, 유시연의 환상이기도 한데, 결국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근대적 가족을 완성하고, 자신에게 보필이 되는 아내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환상(Fantasy)은 현실의 불가능성을 전복시키고, 몽상적으로나마 현실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상상적 공간이 된 것이다.

## 5. 맺음말

본고는 딱지본 대중소설이 어떤 이유로 "대중에게 사랑받았던가"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때문에, 딱지본 대중소설을 읽을 때 작가 문학에서 나타나는 고급한 서사들과의 차이점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실제로 딱지본 대중소설을 처음 접했을 때, 여타의 소설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현실감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며 또한 세속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대중들이 당시를 살아갈 때 느꼈던 여러 가지 현실적 걸림돌이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판타지를 통하여 독자들은 그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약해서 본다면 『절처봉생』, 『황금의 뭉』 그리고 『북간도의 누』를 통해 살펴본 딱지본 대중소설은 기본적으로 개화기라는 시기의 사회의 혼란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변화무쌍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딱지본 대중소설은 이 시기를 살아 나가는 데에 있어서 나름

대로의 표현과 대응 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소설의 내용에 나타난, 근대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성공하는 남성 환상(Fantasy)에 가까운 내용은 이들 몰락한 구세대 작가와 이들의 독자들 - 특히 남성 작가, 남성 독자의 세계관이나 공상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딱지본 대중소설은 담론으로서의 근대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몸으로 겪는 생활로서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그 중심을 두고 있었다. 소설의 결론이 다소 판타스틱하게 역경을 해결해주는 결말이 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역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계관 자체를 바꾸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경제 문제나 근대 제도에 관한 지나칠 정도의 구체적인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는 독자나 작자가 근대에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었음도 유추할 수 있다.

딱지본 대중소설은 다른 어떤 고급한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성(reality)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떠한 역사 자료로도 찾아보기 힘든, 대중들의 생활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딱지본 대중소설에 관한 연구는 더욱 의미가 있다. 비록 딱지본 소설이 문체의 구사나 주제 구현에 있어서 본격적인 근대 소설에 비해 평가를 받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딱지본 대중소설은 그 나름대로의 현실성과 함께 대중들이 선호할 만한 요소가 풍부했던 의미 있는 문화 생산물(cultural product)이라는 평가 받아야 한다.

## 참고문헌

- 작자미상, 『절쳐봉생』, 세창서관, 1952.
- 작자미상, 『북간도의 누』, 세창서관, 1952.
- 작자미상, 『황금의 뭉』, 세창서관, 1952.
- 고은진, 「신소설 <추월색>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양상- 사랑을 지키기 위한 여성주인공의 수난」, 고려대 BK21 한국학교육연구단 한국학 심포지엄 발제문, 2005.
-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적 성격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98.
-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신여성: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 이경훈, 『오빠의 탄생: 한국 근대 문학의 풍속사』, 문학과지성사, 2003.
- 이은숙, 「활자본 신작구소설에서의 애정소설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7.
- 임성진, 「구활자본 애정소설연구: 추풍감별곡, 부용의 상사곡, 청년회심곡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 임화, 『개설 신문학사』, 한길사, 1993.
-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한국문화연구소, 1973.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82.
-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 Brooks, Peter. *Melodramatic Imagination: Balzac, Henry James, Melodrama and the Mode of Excess*, Yale University Press, 1976.
- Micheal Robinson, "Mass Media and Popular Culture in 1930s Korea: Cultural Control, Identity, and Colonial Hegemony," in Dae-sook Su, ed. *Korean Studies: New Pacific Curr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4.
- Janice A. Radway,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4.

## The Popular Novel: the Confusion and Fantasy

Kim Chung-Kang

This essa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o-called "cheap" popular novel and its historical condition, which has long been excluded in the study of South Korean modern literature. By using the concept of "confusion" and "fantasy," I analyze three popular novels, "Saving My Life"[Chŏlchŏpŏngsaeng], "The Tears of North Kanto"[Pukkanto ŭi nu], and "The Dream of Golddiggers"[Hwangkŭm ŭi mong] produced in 1910s and 1930s.

In particular, despite each texts' different periodic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these three novels aptly delineates the confusion and practical difficulty that common people had, and speaks especially the desires of the male subjects including the generations of fathers and ruined aristocratic class who were not able to be "modern" subject, however, had they such desire. These three novels capture the moment of difficulty that these male characters are confronting and expresses "the sorrowness of males,"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womans'. In addition, by adapting themselves in the fast-changing social atmosphere with their own favoritism, they regain their lost socio-cultural status. The use of "fantasy" becomes the literary strategy to overcome the narratives of "hardships of old male generation" and subverts their reality by dreaming the recovery of patriarch in the text.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is "cheap" popular novel provides the clear picture of common people's life which is not found in any other historical materials. Although these novels has been despised and neglected in the world of academia, due to it coarseness of narrative style and "lack of seriousness" in its thematic convention, they should be re-evaluated in that it reflects the "reality" of people's life and their taste.

---

### Key Words

popular novel, the hardships of male, confusion, male fantasy, patriarch, subversion, <Saving My Life>, < The Tears of North Kanto>, <The Dream of Golddiggers>

\* 위 논문은 2006년 4월 7일 투고되어, 5월 28일 심사 완료 후, 6월 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